



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슈퍼, 여행지가 되다 오스카 4관왕 영화 **기생충** 촬영지

서울의 좁은 골목과 가파른 계단, 동네의 작은 슈퍼와 피자집으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.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이라는 역사적인 대이변을 만들어낸 봉준호 감독의 영화 '기생충' 촬영지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. 이들 중에는 해외에서 온 영화 팬들도 있다.

글 한미희 기자



영화 '기생충' 공식 예고편의 한 장면



빛속의 로드무비

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 캠핑 갔던 박 사장네가 갑자기 돌아오고, 그 집에서 파티를 벌이던 기택네는 도망 나와 반지하 집으로 돌아간다. 이들이 비를 막으며 계단을 따라 높은 곳(박 사장 저택)에서 낮은 곳(반지하 집)으로 내려오는 이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다. 계단과 터널이 이어지는 이곳은 종로구 부암동의 자하문 터널이다.



영화 촬영지는 종종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기도 한다. '영화속 한 장면'에 직접 들어가 기록을 남기고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. 풍광이 멋진 곳에서 촬영이 이뤄졌을 때 특히 그렇다.

영화 '기생충'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. 영화는 가난한 기택(송강호)네 반지하 집과 부자인 박 사장(이선균)의 저택 두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. 두 집은 완벽하게 만들어낸 세트였고, 그 세트 촬영 비중이 영화의 90%에 달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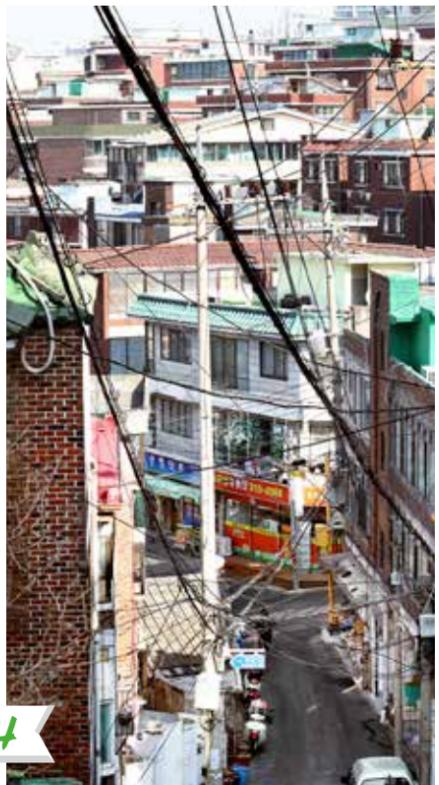
봉준호 감독은 프리 프로덕션(Pre-production, 사전 제작) 기간,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할 로케이션(야외 촬영지)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그곳에서 사진 찍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. 봉 감독은 "(기생충 때는) 세트장을 짓는 동안 로케이션 다니며 사진 찍을 일이 없어서 괴로웠다"고 해외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.

세트가 아닌 곳에서 촬영한 10% 중 로케이션에 가장 공을 들인 장면은 비가 쏟아지던 날 기택네 가족이 박 사장 집에서 도망 나와 자신들의 반지하 집으로 가는 길. 이 한 시퀀스는 무려 7곳에서 촬영한 장면을 이어붙인 것이다.

그 외에 기우가 박 사장 집으로 과외 면접을 하러 가는 성북동 고급 주택가 골목, 기택네 가족이 외식을 하며 작당 모의를 하던 망원동의 기사 식당, 연교(조여정)와 기택이 함께 장을 보던 방이동의 마트 등이 있다.



박 사장네 동네 골목
 기우가 박 사장 집으로 과외
 면접을 하러 가는 장면은
 성북동 고급 주택가
 골목에서 찍었다.



아르바이트

기택네가 반지하 집 거실에 모여 온 가족이 피자박스를
 접고 있다. 피자 박스 접는 법을 전수해준 동작구 노량진동
 '스카이 피자'에는 봉 감독의 사진과 사인이 담긴 현수막,
 영화에 소품으로 쓰인 박스가 남아 있다.



기택네 동네 슈퍼와 골목

영화 초반, 기우(최우식)가 친구 민혁(박서준)과함
 께 파라솔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'우리 슈퍼'는
 마포구 아현동에 있다.
 이곳에서 민혁은 기우에게 박 사장네 고액 과외를
 맡긴다. 슈퍼에서 보이는 기택네 동네
 골목과 계단. 기우와 기정(박소담)이
 반지하 집을 나와 박 사장 집으로 향하며
 걷는 길이다. ⑤

